

운문

체리나무 키우기

이선우
〈고양예술고 3학년〉

이빨 뿌리 모양으로 자리 잡은 잇몸
혈관은 터질 듯 부풀어 오른다
피 맛 나는 박하사탕을 굴리면
잇몸 위로 어린잎이 돋아나는 것 같다

거즈를 물고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첫사랑도 나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더 부풀어 오르는 잇몸에선
체리 통조림만큼 달콤한 맛이 난다
입 안에 자라나는 체리 나무는
마음까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까

터지는 과즙을 그대로 흘렸다면
티셔츠 위로 번진 붉은색은
체리 통조림만큼 달콤한 첫사랑

이빨 빠진 자리에 박하사탕을 박아 넣는다
아픈 만큼 쏟아내면 다시 자라날까봐
눈물로 뿌연 하루는 흐릿하게 일렁인다

네가 좋아하는
체리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문다
나의 혀 밑에선 선물로 받은
커다란 체리 나무가 자라난다
나무뿌리가 부푼 잇몸에 자리를 잡는다

산문

만남

유리아
〈광주효덕초 6학년〉

6학년이 되어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바로 실과 시간에 바느질을 배운 것이다.
바늘과 실이 만나 한 땀 한 땀 채워지면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척 신기하다.
바느질 종류에는 시침질, 홉질, 박음질이 있는데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홉질을 선호한다.
하지만 나는 시침질과 박음질이 더 좋다. 바느질의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사용되는 시침질.

겉으로만 보면 시침질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시침질을 안 해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학원에서의 경우, 현행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선행학습을 못 나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바느질을 반듯하게 하고는 싶으나 귀찮다고 시침질을 안 하면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시침질은 우리 삶을 받쳐주는 밑바닥과도 같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박음질이다.
박음질은 두 땀 앞으로 갔다가 한 땀 뒤로 돌아오고, 다시 두 땀 앞으로 갔다가 한 땀 뒤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한다. 홉질과는 다르게 오래 걸리나 천을 훨씬 단단하고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앞만 보고 달릴 때가 있다. 그러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시험 볼 때 재빨리 문제를 풀고 내는 사람보다 천

천히 풀면서 검토까지 끝내고 내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되돌아와서 한 번 더 튼튼하게 점검을 한 뒤, 다시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이 가장 멋진 것 같다. 앞만 보고 가는 홉질보다 말이다.
나는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완성돼가는 모습이 조금씩 성장해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돼가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 바느질이 좋다.
영기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실의 길이가 안 맞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다 보면 실 틈 없이 걸릴듯하고 마주치게 된다. 그 래도 끝을 향해 나아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바느질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바느질과의 만남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잔뜩 영겨 있는 실 같은 지금의 나는 바느질에게서 배운 교훈대로 실재기 단계부터 시침질까지 한 발 한 발 내디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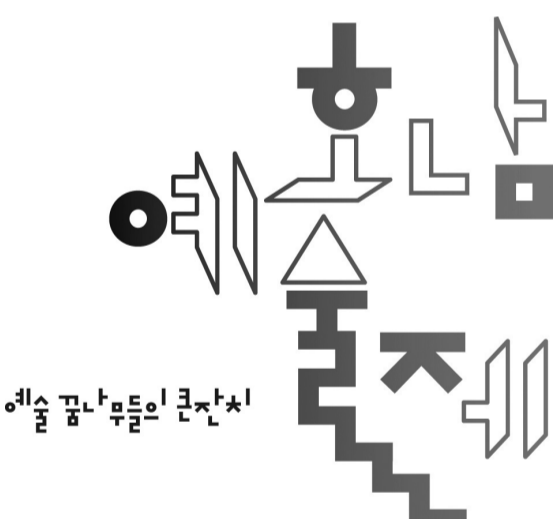
플라워lee

이유화
〈인천가림고 3학년〉

‘모자 연습하기 위해 제게 네일아트 받아보실 분을 구합니다.’
나는 네일아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중고 거래에서 연습할 사람을 구하려 했다.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혹시 지금도 사람 구하시나요?’ 라며 일명 ‘플라워lee’라는 사람이 채팅을 걸어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예약을 받고 나서 마땅히 네일 해줄 장소를 빌리지 못해 나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오라며 주소를 보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고 나가서 본 얼굴은 다름 아닌 몇 달 전 집을 나간 언니였다.
언니는 태연하게 우리 집으로 성큼 들어왔다. ‘플라워lee’라는 닉네임을 다시 생각해보니 언니 이름과 성이 들어간 닉네임

이었던 것도 깨달았다. 언니는 마치 나와 모르는 사이인 듯 내게 존댓말을 써왔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칭찬에 박했던 언니는 정말 손님이 라는 캐릭터에 몰입한 듯이 조금씩 칭찬을 해줬다. 예전엔 언니한테 네일을 해줬을 땐 칭찬 한 번을 하지 않았던 언니였다.
그런 언니가 낯설었지만 처음 받아보는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언니에게 근데 저라는 걸 알고도 예약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언니는 ‘나 뭐. 도움 되면 좋잖아요.’” 라고 했다.
언니는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악을 지르며 엄마와 싸우던 언니는 그날 저녁 캐리어를 싸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떠났다.
나는 언니 손톱에 있는 네일 아트들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곤 언니가 이번엔 진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못한 언니를 찾지 않았다. 마치 딸은 나뉘어 없었다는 듯이 살았다. 그렇게 언니의 행방은 고요하고 잠잠했다.
네일아트에 집중할 무렵, 언니는 갑자기 “인생은 원래 혼자예요.” 라는 말을 해줬다.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해냈다. 언니 말대로 언니는 항상 혼자

견뎠다. 엄마가 첫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매일 도가 지나친 잔소리를 혼자 묵묵히 삭혔던 것처럼. 나는 언니한테 그래도 집은 있어야. 라는 말을 하다가 순간 죄책감이 내 입을 막았다.
그러자 언니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도전하려 간 게 잘못된 거냐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언니는 기출이라는 단어 대신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그 단어보다 언니가 나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닌 담담히 말하는 것이 더 와 닿았다. 나는 입을 우물우물 거리다 “많이 속상했었겠어요.” 라는 말을 했었다. 언니는 피식 웃으며 “어려 보이는데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대회 연습이나 잘하세요.” 라며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언니의 손에 네일아트를 마무리 지었다.
그 다음에도 나는 대회 연습을 위해 몇 번 글을 올렸다. 그때도 예약한 손님의 닉네임은 다 ‘플라워lee’ 이었다. 나는 언니의 소식을 중고 거래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다. 집에 있을 땐 몰랐던 언니의 도전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뒤 언니는 네일아트를 받고 돌아갈 때 “대회 꼭 우승하세요.” 라는 마지막 말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 왜인지 나는 언니가 어디선가 큰 도전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예술 꿈나무들의 경연잔치인 제68회 호남예술제가 막을 내렸다. 발레 클래식 군무에 참가한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화려한 자세를 뽐내는 장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